



“실수할까 조심조심… 내 케이크 맛스럽죠”

몇 년 전 먹을지도 끼는 쿠키와 케이크 등을 만드는 파티시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감가는 ‘삼순’이라는 배역을 멋지게 소화한 배우 김선아 덕분에 파티시에는 지금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직업이 됐습니다.

지난 28일 2008 광주 국제식품 산업전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꼬마 파티시에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깊은맛을 담은 김치와 떡, 전통음식 전시회와 함께 마련된 빵·제과 페스티벌 행사장의 모습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달을 때마다 평범한 카스텔라 케이크는 달콤한 생크림으로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생크림이 든 짤개가 몇 번 오가니 맛있던 케이크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깔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파티시에들의 섬세한 손놀림에

환호성을 내지르던 어린이들도 케이크 만들기에 두 팔을 걷었습니다.

행사장을 정신없이 누비던 개구쟁이도 하이얀 케이크 앞에서는 진지한 파티시에가 됩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실수라도 할까 조심조심 고사리 손을 움직이는 아이들, 사람들도 숨죽여 꼬마 파티시에의 작품이 완성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파티시에라는 색다른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달콤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봤다는 뿐만 아니라 더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것입니다.

툭하면 터지는 식품 파동에 어머니들의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조금 벙거지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엄마표 간식’을 만들어보는 것을 어떨까요? 건강하고 즐거운 웃음 속에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괜찮아

한 아저씨가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저씨가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문밖으로 목을 내밀었는데 마침 지하철 문이 닫혀버렸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자 그 아저씨는 문에 목이 긴 체 큰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한 승객이 걱정해서 물었다.

“저기 아저씨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더 크게 웃는 것이었다. 걱정이 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웃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아저씨가 더 크게 웃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하하하 나 말고 한 놈 더 있어!”

▲간단한 이유

두 꼬마가 TV를 보고 있는데 화가가 누드 모델을 그리는 장면이 나왔다.

한 아이가 쓱쓱려운 듯 물어보았다.

“왜 화가가 여자를 벗겨 놓고 그리지?”

그러자 다른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다.

“그것도 몰라? 옷 그리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렇지.”

▲선수 교체

어느 회사에서 영업회의가 열렸다. 한 부부가 이번 달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소리로 직원들을 나무랐다.

“여러분이 보여준 실적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변명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품을 판매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간부는 축구 선수 출신의 사원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때요? 내가 맞지 않나요? 축구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선수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팀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감독이나 코치를 갈아치웁니다.”

▲업기 할머니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또 심하게 다툼을 하던 중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두고 봐! 내가 죽으면 반드시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할멈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마친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놀았다. 그것을 지켜본 한 아줌마가 걱정되는 듯 물었다.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걱정 말아.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서 끝었어. 아마 지금쯤 땅 밑을 열심히 파고 있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번호사가 고객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입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얼마 뒤 그 여자가 번호사를 찾아와 말했다.

“제가 번호사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 를 했답니다.”

“그러세요? 혹시 번호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절 찾아오시라고 제 명함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꾸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명함을 받지 않으려 하는 거 있죠!”

“아니 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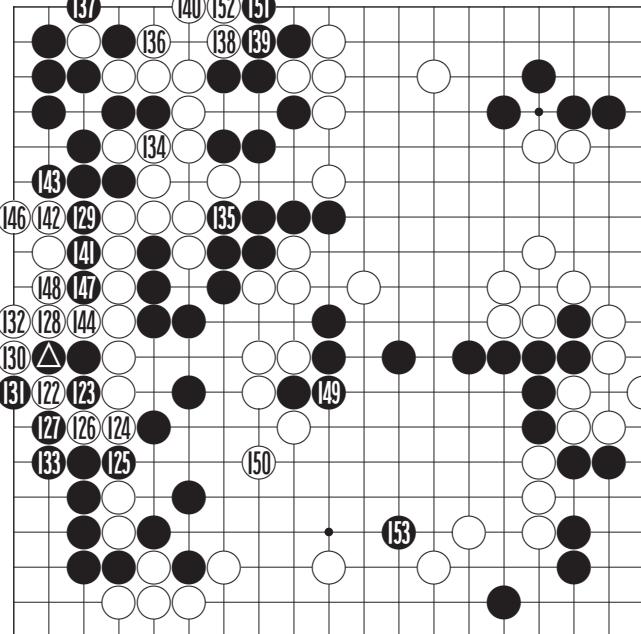
“글쎄 선생님 같은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지 뭡니까.”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기사회생의 묵착

학생부 결승전 7보(122~153)

白 이대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흑 ▲가 숨통을 조이는 한 수로 백 대마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장면이다.

이대권군은 장고를

거듭한 끝에 백 122로

불였는데 이 수가 백 대

마를 지옥에서 구해올

린 기사회생의 묵착이

되었다. 이 수가 묵착인

이유는 흑 127까지 교환된 다음 백 128이 선

수가 된다는 점이다.

만약 흑이 ‘참고도’의 1로 상변의 집을 없

애면 백 2부터 6을 선수한 다음 8에 두면 살 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양승하군이 흑 129로 잡으려 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백 136부터 140까지 상변에서 가까스로 한집을 만드는 수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상변의 한집은 아직도 ‘가’에 집어 넣어 패를 하는 시한폭탄이 남아있어 완전히 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패는 백이 만

패불첨을 했을 경우 좌상귀의 흑도 위험하기

때문에 숨겨 진행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양

승하군도 153에 두며 속으로는 좌상귀를 노

려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SISAK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96>

I think I might get this

이것을 살까 하는데

A : I think I might get this. what do you think of the book?

B : What do I think of the book?

A : Yeah, you read it. Come on, tell me.

B : Well, I thought it was the worst book I've ever read. I wouldn't pay a nickel for it.

A : 이것을 살까 하는데, 그 책에 대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B : 그 책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그래, 자네는 읽었잖아. 이봐, 말해줘.

B : 음, 그 책은 내가 여태껏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영망이었다. 네. 나는 그 책에 5센트 동전 한 개도 지불하고 싶지 않아.

* get = buy

* come on = 이봐

* pay for ~ = ~의 값을 지불하다

* nickel = 5센트 동전

* worst = 가장 영망인

오하요우 니혼고 <1196>

お手傳(てつだ)いしましょうか?

도와 드릴까요?

A : 事務室(じむしつ)がなんとなく氣忙(きせわ)しいですね。

B : そうですね. 私は仕事が山のようになって。

A : お手傳(てつだ)いしましょうか?

B : えっ, 本當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 : 事務실이 어쩐지 어수선하군요.

B : 그래요. 전 일이 산처럼 많아서..

A : 도와 드릴까요?

B : 어, 진짜로? 고맙습니다!

事務室(じむしつ) : 사무실

なんとなく : 웬지 모르게, 어쩐지

氣忙(きせわ)しい : 어수선하고 부산하다

니하오 중국어 <273>

你去河邊做什麼?

당신은 강가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A: 你从哪裏來?

nǐ cóng nǎlǐ lái

니 촌 냐리 라이

B: 我从湖邊來。

wǒ cóng húbiān lái

우 촌 흥변 라이

A: 你去河邊做什麼?

nǐ cù hébiān zuò shénmé

니 쿠 헥변 쭈우 쟈메

B: 我去河邊喝水。

wǒ qù hébiān hē shuǐ

우 쿠 헥변 헤 쇠이

A: 당신은 어디에서 놀습니까?

dāng shì nán zài nǚ mǎi nǐ?

당신은 남에서 놀이하나니?

A: 당신은 강가에 가서 물을 놀았습니까?

dāng shì zài jiānggāi yǐng zài shuǐ lǎo wàim?

당신은 강가에 물을 놀았습니까?

河邊 [hébiān]

水 [shuǐ]

江 [jiāng]

河 [hé]

한자 이야기 <913>

烏飛梨落 (오비이락)

까마귀 오, 날 비, 배나무 이, 떨어질 락

오비이락(烏飛梨落)은 속담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한역한 말이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 어떤 다른 일과 동시에 일어나니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라도 있는 듯한 혼의를 받는 것을 비유한다.

조선 인조(仁祖) 때 홍만종(洪萬宗)은 병석에 있으면서 15일 만에 탈고(脫稿)하였다는 ‘순오지(旬五志)’를 엮었다. 그 책에는 많은 우리 속담이 한역되어 실려 있는데, ‘오비이락’도 그것 중의 하나이다. 까마귀는 배나무에 앉아 있다가 날아갔을 뿐인데, 그때 우연히 배가 떨어져서 마치 까마귀가 떨어뜨린 것으로 오해받는다는 뜻이다. 까마귀로서는 억울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누명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롭게도 일이 불길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의 의심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하다.